10th ANNIVERSARY

국민 건강과 함께한 10년
100세 시대 동반자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9 NECA 10th Anniversary Symposium

10th ANNIVERSARY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9 NECA 10th Anniversary Symposium

NECA 10년의 성과와 의료기술평가 발전 전략

NECA 10-Year Performance and Future Development Strategy in HTA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23일(화) 장소 • 서울 코엑스 401호

주최 •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9 NECA 10th Anniversary Symposium

CONTENTS

Welcome Messages ····· 03
Program ····· 10

DAY1 2019년 4월 22일(월)

I 기 조 연 설 I 의료기술평가의 정책적 활용 ····· 17
I Session 1 I NECA 10년의 성찰 ····· 41
I Session 2 I 사회속의 NECA ····· 95

DAY2 2019년 4월 23일(화)

I Session 3 I 보편적 의료보장과 HTA ····· 149
I 특 별 강 연 I ····· 189
I Session 4 I 미래사회의 NECA ····· 235

Welcome Messages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이영성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근거를 생산하는 싱크탱크로서 성장 기반을 닦아주신 선대 원장님들과 오늘의 NECA를 일구어낸 임직원 분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오랜 기간 함께 준비해주신 '2019 의료기술평가주간 조직위원회' 임태환, 박병주 위원장과 위원님들께도 거듭 감사 인사드립니다.

NECA 설립 당시 '근거기반의학(EBM)'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게 설계하고 정착시키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NECA는 10년의 긴 호흡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학적 ·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때 최상의 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기반의학의 가치를 확산하고 NECA의 존립 가치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숨 가쁘게 10년을 지나오자 그간 주력해온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1년차에 접어든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은 이제 안정 궤도에 올라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미흡한 부분은 끊임없이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산업계와의 상생 기조를 공고히 하며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연구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근거연구의 정책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술재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의료기술의 최적사용을 도모한 점은 NECA뿐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ECA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환자중심의료'입니다. 의료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환자'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환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NECA의 소명임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환자 중심 연구 · 평가 방법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NECA에서 맡게 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진료현장자료(RWD)를 활용한 재평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현실에 맞는 최상의 근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선의 치료법과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이러한 NECA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4월 넷째주를 의료기술평가 주간으로 정하고, NECA 10주년 심포지엄과 HTAsiaLink 연례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심포지엄과 더불어, 아 · 태지역 의료기술평가기관 국제 협력체인 HTAsiaLink의 회장국으로서 유치한 연례회의에도 많은 관심과 지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NECA는 국내외 보건의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늘 깨어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노력하는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 영 성

Welcome Messages |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2019 의료기술평가 주간」 조직위원장 임태환입니다.

「2019 의료기술평가 주간」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10주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기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뒤이어 개최되는 HTAsiaLink 국제 연례회의는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평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성찰하고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이라는 인류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뜻 깊은 자리입니다.

201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NECA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년을 기념하고 NECA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자리에 조직위원장으로 다시 서 있는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NECA가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기관의 성장을 이끌어 온 선대 및 후대 원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료기술평가는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진적인 제도로, 현재 북미와 유럽, 동북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평가의 국제적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기에 NECA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의료기술평가 국제협의체인 HTAsiaLink의 창립 멤버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 간 아 · 태지역 의료기술평가 협의체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의장국으로 그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NECA는 아 · 태지역 의료기술평가 대표 기관으로서 현재 세계적인 의료기술평가기구인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HTAi)와 국제 의료기술평가 네트워크인 INAHTA의 회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NECA가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의학한림원 회장으로서 저는 2017년도에 의학한림원이 『미래보건의료 전망연구』연구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NECA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여 감사드리는 바이며, 나아가 학제간, 기관간의 협동 연구의 중요성을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앞으로도 국제적 역량을 펼치고 영국의 NICE, 미국의 AHRQ, 캐나다의 CADTH 등 세계적인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미래 의료기술평가의 비전을 이끌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의료계의 한 파트너로서 NECA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의료기술평가주간이 한국 그리고 아 · 태지역 의료기술평가의 발전을 위한 성장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 뜻 깊은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의료기술평가 주간」 조직위원장 **임 태 환**

Welcome Messages |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 학술위원장을 맡은 박병주입니다.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9월,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학술위원장을 제의받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08년 10명의 학자와 함께 '근거중심 보건의료'라는 책자를 펴내면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되는 과정과 이후 발전과정을 지켜보았고 많은 부분을 함께 해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초대 원장인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의 확고한 비전과 열정 및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의 노고와 외부전문가들의 협력에 힘입어 의료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보건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환자중심의 공익적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시의적절하게 생산하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담당하여야 할 원활한 의사소통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어지는 심포지엄은 그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해온 업무와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보건의료분야 발전에서 담당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고려의대 김병수 교수, 서울의대 김윤 교수, 중앙의대 김재규 교수,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 한양의대 배상철 교수, 중대 약대 서동철 교수,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 이광섭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명예회장,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들께서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흔쾌히 참여해주셨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이른 시간에 회의를 가지면서 열띤 토론으로 기조연설과 특별강연 및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고, 솔선수범하여 연자와 좌장을 맡아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의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NICE를 포함하여 미국과 호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보다 앞선 경험에 기반한 지혜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과 같이 한국보건의료원이 지나온 1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교훈과 지혜를 얻어 향후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학술위원장 **박 병 주**

Welcome Messages |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2009년 3월 25일 국내 유일의 공공 의료기술평가연구기관으로 출범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의료기술의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전(全) 생애주기 과정에 걸친 평가를 통해 유익한 의료기술을 국민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술일 경우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5년 '국민건강임상연구'(NHCR)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간 약 289억 원의 예산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진료 등에 필요한 임상근거 생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해 왔습니다.

공익적 임상연구의 일환인 국민임상연구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상업적 가치가 크지 않아 기업에서 기피하거나 불공정한 연구결과 도출이 우려되는 연구 등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임상연구를 정부 주도 하에 수행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적 임상연구의 중심은 자연히 국민과 환자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본 위원장실에서 주최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중심은 환자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건강임상연구 사업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실제 효과 및 안전성과 같은 환자성과(patient outcomes)와 관련된 질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법, 환자안전 등 환자를 중심에 놓는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원 10년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환자 중심 연구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정부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계,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가 '퀀텀점프(Quantum Jump)'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개원 1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실 내외빈 여러분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쉼 없이 달려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새로운 미래를 주도해 나가는 혁신연구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명 수

Welcome Messages |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의료기술 시장은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 차원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의료기술의 도입으로 환자안전 및 치료 효과가 향상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함께 의료기술 관리와 재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권 진입 후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점검 및 기존 의료기술의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안이 되는 기술과 비교해 최적의 의료기술 사용 유도를 위해서도 재평가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비용-효과 대비 편익이 큰 의료기술을 이용함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사용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실제 재평가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한국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원 10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논의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심포지엄을 경청해 의료기술평가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기 동 민

Welcome Messages | 축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종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9년 개원 이래 의료기술평가를 바탕으로 근거기반 보건의료의 정착과 발전에 1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이바지해 왔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생성하는 의료기술평가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준점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평가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러한 주요한 의무를 긴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구의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비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이룩해야 하는 숙제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현존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이며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외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고견을 나누고 함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심포지엄이 마무리 된 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참여자분들의 얼굴에 우리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희망이 깃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제 자리인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적인 차원으로 많이 돕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영성 원장님과 이번 심포지엄 10주년 학술위원장이신 박병주 교수님, 의료기술평가주간조직위원회 위원장 임태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의 학식과 견문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과, 심포지엄을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개원 10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중차대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윤 종 필

Welcome Messages | 축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보건의료 정책과 임상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 참여'와 '열린 혁신'을 강조하는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을 발족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된 지도 올해로 3년째입니다. 정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급여항목을 결정하는 등 로드맵에 따라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유관기관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함께 의료계,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의료기술평가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기술재평가사업과 관련하여 호주의 의료기술재평가 위원장을 초대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분야 석학들이 참여하여 의료기술평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의료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나아가 미래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 용 익

Program

DAY1 2019년 4월 22일(월)

Time	Program	
09:00- 09:30	등록 및 개회	
09:30-10:10	개회식 ■ 환영사 **이영성** 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축 사 **이명수**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차관 (보건복지부) **Budi Hidayat** 부의장 (HTAsiaLink)
10:10-10:40	NECA 10주년 기념식	
10:40-11:00	Coffee break	
기조연설		좌장 | **장성구** 회장 (대한의학회)
11:00-11:40	의료기술평가의 정책적 활용	**이영성** 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Session 1	**NECA 10년의 성찰**	좌장 | **박병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3:30-13:50	NECA 설립과 도전, 미래 발전 전략	**허대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3:50-14:10	전주기적 의료기술평가	**박종연**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4:10-14:30	한국의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과정	**한광협**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4:30-15:30	토론 및 질의응답 **윤영호**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변의형**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호준**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양중** 기자 (한겨레신문) **김석현** 실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5:30-15:40	Coffee break	
Session 2	**사회속의 NECA**	좌장 | **이상일**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15:50-16:10	근거기반 보건의료의 현재	**안형식**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6:10-16:30	신의료기술평가의 발전과제	**오주형**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16:30-16:50	공익적 임상연구의 사회적 가치	**김병수**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6:50-17:50	토론 및 질의응답 **김재규**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이상수** 이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유경** 교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영**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18:30-20:00	10주년의 밤 (Closed Meeting, 장소:소노펠리체)	

Program

DAY2 2019년 4월 23일(화)

Time	Program	
09:00-09:30	등록	
Session 3	**보편적 의료보장과 HTA**	좌장 | 박윤형 교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09:30-10:00	호주 의료기술재평가 경험	**Bruce Robinson** (Chair, MBS Review Taskforce)
10:00-10:15	보편적 의료보장의 우선순위 설정	**권순만**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0:40-11:00	의학적 관점에서의 의료기술재평가	**엄태현** 교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0:30-10:50	Coffee break	
10:50-11:50	토론 및 질의응답 **안덕선** 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신채민** 본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해민**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진한** 기자 (동아일보)
특별강연		좌장 | **서동철**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3:20-14:00	의료기술평가영역에서의 RWE 활용	**Sean Tunis** (President, CMTP/HTAi)
14:00-14:40	NICE의 Medtech Early Technical Assessment (META) Tool	**Grace Jennings** (Senior Scientific Adviser, NICE)
14:40-15:00	Coffee break	

* NECA-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Closed meeting 진행 예정

Session 4	**미래사회의 NECA**	좌장 | 이영성 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5:00-15:20	미래보건의료 전망	**박병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5:20-15:40	미래사회의 의료기술평가	**이상일**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15:40-16:00	의생명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이슈	**정규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00-17:00	토론 및 질의응답 **박상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심정호** 상무 (IBM)	**서준범**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홍성태**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7:00	폐회	

Program

Day1 Monday 22 April

Time	Program
09:00- 09:30	Registration
09:30-10:10	**Opening Session** ■ Welcome Remarks — **Young Sung Lee** (President, NECA) ■ Congratulatory Remarks — **Myung Soo Lee** (Chair, National Assembly Health & Welfare Committee) **Dong-min Ki** (Congressman, National Assembly Health & Welfare Committee) **Jong-Pil Yoon** (Congressman, National Assembly Health & Welfare Committee) **Deok-cheol Kwon** (Vice Minist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ong-Ik Kim** (Presid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Budi Hidayat** (Vice Chair, HTAsiaLink)
10:10-10:40	NECA 10th Anniversary Ceremony
10:40-11:00	Coffee break
Keynote Speech	Moderator | **Sung Goo Chang** (President,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11:00-11:40	The Role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Policy Decision-Makings **Young Sung Lee** (President, NECA)
Session 1	**Past 10 years of NECA** — Moderator | **Byung-Joo Par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3:30-13:50	Past Challenges and Future Goals of NECA **Dae Seog He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3:50-14:10	Life-cycle Management and Assessment of Health Technology **Chong Yon Park** (Senior Research Fellow, NECA)
14:10-14:30	Development Process of National Health Clinical Research in Korea **Kwang Hyup Ha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4:30-15:30	Panel Discussion and Q&A **Young Ho Y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ang-joong Kim** (Medical correspondent, Hankyoreh) **Eui Hyeong Byeon** (Director General, Benefit Listing Department i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Seok-Hyun Kim** (Executive Director, NECA) **Hojun Son** (Manager, Division of Healthcare Resources Polic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30-15:40	Coffee break
Session 2	**Role of NECA for the sake of our society** — Moderator | **Sang-il Lee**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15:50-16:10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Healthcare **Hyeong Sik Ahn**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6:10-16:30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Ju Hyeong Oh**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6:30-16:50	Public Value of Clinical Research **Byung Soo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6:50-17:50	Panel Discussion and Q&A **Jae Gyu Kim**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ou Kyoung Lee**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Yun-Jung Heo** (Chief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Research Institute) **Soo Young Kim** (Professor, Hallym University Medical College) **Sang-Soo Lee** (Vice-chair,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18:30-20:00	Gala Dinner (*Venue: SONO FELICE)

Program

DAY2 Tuesday 23 April

Time	Program
09:00-09:30	Registration
Session 3	**HTA to achieve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 Moderator | **Yoon Hyung Park**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09:30-10:00	Introduction to the MBS Review Taskforce (Australia) **Bruce Robinson** (Chair, MBS Review Taskforce)
10:00-10:15	Priority Setting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Soonman Kwo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10:40-11:00	Health Technology Reassessment in Medical Perspective **Tae-Hyun Um** (Professor, Inje University Paik Hospital)
10:30-10:50	Coffee break
10:50-11:50	Panel Discussion and Q&A **Duck-Sun Ahn** (Chief Director, Korean Medical Associ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Hae Min Jung** (Director,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Jeong-hwa Kang** (President, Consumers Union of Korea) **Jin-Han Lee** (Journalist, Dong-A Ilbo) **Chae-min Shin** (Executive Director, NECA)
Special Lecture	Moderator | **Dong-churl Suh**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13:20-14:00	Improving Eviden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ean Tunis** (President, CMTP/HTAi)
14:00-14:40	How to Assess and Adopt New Health Technologies **Grace Jennings** (Senior Scientific Advisor, NICE)
14:40-15:00	Coffee break

* A closed meeting for NECA-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Session 4	**Strategy for stepping forward in the future** — Moderator | **Young Sung Lee** (President, NECA)
15:00-15:20	Future Prospect of the Healthcare System in Korea **Byung-Joo Par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5:20-15:40	The Future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Korea **Sang-il Lee**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15:40-16:00	Development of Biomedicine & Biomedical Ethics **Kyu Won Jung**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16:00-17:00	Panel Discussion and Q&A **Sang Min Par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Joon Beom Seo**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Jungho Shim** (Executive Chief Medical Officer Korea and Associate Chief Health Officer, IBM Watson Health) **Sung-Tae Ho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7:00	Closing

NECA 10년의 성과와 의료기술평가 발전 전략

NECA 10-Year Performance and Future Development Strategy in HTA

I 발표자료 I